

염상섭 소설의 전쟁 미망인

공 종 구*

요약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염상섭의 소설들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증하기 위해 연작 소설에 해당하는 두 장편인 『미망인』과 『화관』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했다.

무엇보다 이 두 작품을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해석 코드로 접근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두 장편이 전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증상 가운데 하나였던 ‘전쟁 미망인’의 문제를 서사의 전면에 소환하여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의 운명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전쟁 미망인들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사회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구성원들은 전쟁 미망인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타자화했다.

그 연장선에서 당시 사회구성원들은 전후의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희생양이나 완충지대를 필요로 했다. 그 희생양이나 완충지대로 지목된 대상은 당시 한국사회의 권력 위계에서 최하위 포식자의 자리에 위치했던 전쟁 미망인들이었다. 전쟁 미망인들이야말로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격이나 공격성의 독소나 악취를 흡수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등단 이후 일관되게 리얼리스트로서의 세계관과 창작 방법을 작가적 화두로 삼아 온 염상섭에게 이와 같은 전쟁 미망인의 문제는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미망인』과 『화관』 두 연작 장편은 바로 그러한 작가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 두 장편을 통해 염상섭은 당시 전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쟁 미망인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사회적 책무임을 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법으로 전쟁 미망인의 결혼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리얼리즘과 민족문학, 전후사회, 전쟁 미망인,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사회 풍속의 타락과 성 윤리의 문란, 희생양과 완충지대, 배제와 차별, 서사의 지연과 잉여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전쟁 미망인의 전경화
3. 상징계의 지배적 규범과 관습의 장벽 넘어서기
4. 결혼 서사의 지연과 잉여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염상섭(1897-1963)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무엇일까? ‘리얼리즘’과 ‘민족문학’. 염상섭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라는 지적에 대해 탄축을 걸거나 꿈짜를 놓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둘은 염상섭이 자신의 문학적 건축물을 설계하고 축조해가는 과정에서 지붕과 서까래로 선택할 정도의 핵심 질료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엇보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벽』 제14호(1921.8-10)에 『표본실의 청개고리』를 통해 등단한 이후 1962년 『사상계』에 발표한 『황보문단회상기』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마치게 되기까지, 40여 년에 이르는 성장 동안에 이루어진 염상섭의 글쓰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조금도 과장이 아

님을 확인할 수 있다.

염상섭은 작품 활동의 휴지기라고 할 수 있는 만주 시절(1936-1945)을 제외하면 결코 길다고만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16편의 장편소설과 159편에 이르는 단편”¹⁾ 및 330여 편의 산문²⁾들을 발표한다. 발표 분량만으로도 다른 작가들을 압도하는 이들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존재와 세계에 대한 치밀한 관찰에 바탕을 둔 냉철한 산문 정신이 작품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염상섭의 작품들에는 허영이나 위선에 기초한 존재와 세계에 대한 선부른 단정이나 허위의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낭만적 이상화나 주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안이한 타협이나 해결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염상섭은 시종일관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세계관과 중산층의 균형감각으로 무장한 민족문학을 자신의 문학적 본령이자 작가적 화두로 삼고 창작 활동을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염상섭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정신을 고갱이로 하는 리얼리즘 정신을 통해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치열하고도 정직하게 맞서고자 한 대결정신을 통해 민족적인 전망을 모색하고 천착하고자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글의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기대고 있는 전제는 바로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야말로 염상섭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와 가설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이 글이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의 사회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부각된 존재인 전쟁 미망인을 주요한 서사 주제로 소환하고 있는 『미망인』(『한국일보』, 1954. 6.15-12.6)과 『화관』(『삼천리』, 1956. 9-1957. 9)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에서 연작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두 장편에 대한 꼼꼼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제까지의

1)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3면.

2) 이 편수는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 I ⅡⅢ, 소명출판, 2013-2014 참조.

일반적인 통설과는 달리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염상섭 문학의 중심과 저류에는 여전히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염상섭의 1950년대 장편소설들은 범속한 풍속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따라서 평면적인 세태소설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일반적인 통념이나 정설로 공유되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증오하든 좋아하든 일본이 없으면 그는 작가적 고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련이 사라진 『재회』(1948) 이후 염상섭의 작품이 나아간 바를 중산층 보수주의에 지나지 않는 일상적 삶의 평면밖에 없는, 바둑판으로 비유하자면 끝내기에 지나지 않다³⁾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김윤식 이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황보가 민족의 운명과 역사, 그리고 현실에 대한 해방 전 못지않은 뜨거운 작가적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그의 관심이 그것에서부터 상당히 물러나버리기 때문이다’⁴⁾와 같은 사례들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변주를 보여 왔다.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자 설득력 있는 평가이다.

실제로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미망인』과 『화관』을 비롯한 1950년대 염상섭의 장편들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서 염상섭의 작가적 정체성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삼대』를 비롯하여 『무화과』, 『사랑과 죄』, 『이심』, 『광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사의 응집력이나 밀도에서 떨어진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불어 염상섭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자 작가적 화두로 기능하는 리얼리즘이나 민족문학과 관련된 작가의식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후퇴나 약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작품을 비롯

3)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869-872면 참조.

4)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후기 단편소설』, 문학과 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156면.

한 전후의 장편소설들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염상섭이 1950년대에 발표한 10여 편의 장편들을 통독하다 보면 그러한 저간의 평가나 통념들이 서사의 표층에만 집중한 결과 그 이면의 심층이나 심연을 천착하거나 탐색하지 못한 따라서 확대 해석이나 과잉 해석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평가가 일반적인 통념이나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1950년대에 발표한 염상섭의 장편들이 거의 대부분 연애서사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어쨌든 담화 차원에서 차용된 혼담 또는 연애소설의 문법은 황보 장편소설의 한 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라는 지적처럼 염상섭의 소설, 특히 1950년대 장편소설에서 연애는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축이자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연애 서사의 해석이나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따라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연애서사를 통속 소설로 재단하거나 등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실제 물건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동서고금의 고전들 가운데는 애정이나 연애를 소재나 모티프로 하는 작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애나 애정을 단순히 통속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 차원에서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작품들이 문제이지 연애를 매개로 인간 존재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나 탐색을 모색하는 작품들은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이제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화적 생산물 가운데 남녀간의 애정이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이자 창작 원천으로 기능해 온 것만 보더라도 그러한 평가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한마디로 연애서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문제인 것이지 연애 서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서사의 외피를 통한 미망인의 운명의 추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투사하고 있는 두 장편

5)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의 시학』, 문학과 비평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56면.

인 『미망인』과 『화관』은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자장 안에서 염상섭의 작가의식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 글은 ‘연애서사의 외피를 쓴 사회소설로 규정 가능한 두 장편에 나타난 한국전쟁 미망인들의 운명의 추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문제는 한국전쟁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염상섭은 『미망인』을 연재하는 심경과 소회를 밝히고 있는 「소설과 현실: 『미망인』을 쓰면서」라는 글에서 리얼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작가관과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작가로서 제작에 노심하고, 작품에 추구하는 것은 흥미보다 먼저 진실한 생활상과 시대상을 붙들어 여실히 독자의 눈앞에 내밀어 놓는데 있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표현으로 연애를 그려서 흥미를 끈다 할지라도 그것이 펴진(逼真)한 실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채를 본 때 놓은 것 같아서 그것은 실생활과 거리가 먼 가공적 가상적의 환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 『미망인』은 종래의 미망인 형의 심리작용이나 생리현상을 붙들어 쓰자는 흥미에 그 주제를 둔 것은 아니다. 이번엔 겪은 전란은 여러 각도로 보아야 하겠지마는 그 부작용의 하나로서 나타난 전쟁미망인의 생활과 그 사회적 위치라든지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미망인 혹은 준미망인의 생활양상과 생활태도와 그들이 걷는 길과 생각하는 바를 비교하여 관찰하고 그려보고자 이 붓을 든 것이다.⁶⁾

‘1954년 6월 9일 공식적으로 상업주의를 표방하고서 창간⁷⁾한 『한국일

6) 염상섭, 『소설과 현실: 『미망인』을 쓰면서』, 『한국일보』, 1954. 6.14.

7)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 인물과 사상사, 2004, 217-218면.

보』의 사주인 장기영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시작한 『미망인』의 연재를 통해 염상섭이 내세웠던 의도나 목표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이 작품의 연재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심각한 사회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전쟁 미망인 문제의 책임이 상당 부분 국가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쟁 미망인들의 다양한 삶과 운명의 추이에 대한 추적과 관찰을 통해 그 당시 한국사회가 그러한 국가적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한편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이나 방략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의도나 목표는 두 장편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그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2. 전쟁 미망인의 전경화

2년여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연재 발표된 『미망인』과 『화관』 이 두 장편은 제목도 다르고 등장인물들의 이름 또한 다르다. 서사의 외형적인 표지만 보아서는 전혀 다른 작품들이다. 하지만 두 작품은 실제 상·하 2부로 구성된 연작 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무엇보다 서사의 내용에서 『화관』은 『미망인』의 바로 뒤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달리기 경기에 비유하자면 『화관』은 『미망인』의 후발 주자인 셈이다. 또한 두 작품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서로 이름만 다를 뿐 정확하게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형성하고서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발 주자인 『미망인』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인물로 기능하는 홍식과 명신은 『화관』에서 진호와 영숙으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자경 여사만 유일한 예외인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창규는 인환으로 금선은 봉순으로 인용은 택규로 그리고 명신의 전부 소생인 옥진

은 원길이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작품에서 서사의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고원다방은 낙양다방으로 정확하게 대응⁸⁾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친연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 두 장편을 통해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의 핵심을 밝히는 작업과 관련해서 이 두 작품에 드러나는 아주 흥미로운 면서도 중요한 따라서 주목을 해야 마땅한 서사의 표지는 “이러한 각양각색의 미망인 혹은 준미망인의 생활양상과 생활태도와 그들이 걷는 길과 생각하는 바를 비교하여 관찰하고 그려보고자 이 붓을 든 것이다”⁹⁾라는 작가의 창작 동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거의 다 전쟁 미망인들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홍식이와 더불어 이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인물인 명신이는 말할 것도 없고 홍식이의 형수, 홍식이의 절친인 인웅의 모친이자 명신 모친과는 이종 사촌의 인척 관계인 조씨 부인, 그리고 인웅이의 장모인 정자경 여사 등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전쟁 미망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인물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쟁 미망인들이 서사의 전면에 돌출하게 부각되는 서사적 전경화를 통해 염상섭이 말하고자 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 전쟁 직후의 한국 사회에서 전쟁 미망인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가? 달리 말해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순서일 듯싶다.

“아아 50년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논리를 등지고 불치의 감탄사로서(써)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라는 규호처럼, 전후의 한국사

8) 따라서 앞으로 이 두 작품은 하나의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인물들과 공간의 명칭은 『미망인』을 기준으로 한다.

9) 염상섭, 앞의 글.

10) 고은, 『1950년대』, 청하, 1989, 19면.

회는 척박한 토양 위에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겨울 들판을 연상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인정 또한 그러한 토양을 닮아서인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루하루의 생존 자체가 생의 절실한 과제나 목표가 될 정도로 절박한 처지의 상황에 빠진 데다 선과 악의 경계마저도 해체될 정도로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가치의 아노미 상태¹¹⁾에서 공동체적 미덕이나 배려의 가치와 같은 타자의 상상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다름 아닌, 만만한 분출구를 찾아 때를 지어 몰려다니던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공격성의 독소와 악취를 오롯이 흡수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희생양이나 완충지대였다. 바로 그 희생양이나 완충지대의 가장 최적화된 집단으로 떠오른 대상은 당시 한국사회의 권력의 위계에서 최하위 포식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던 전쟁 미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되어야만 했다.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아니한 아내’라는 뜻이 시사하듯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최소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¹²⁾되는 전쟁 미망인들은 전쟁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접이나 보상은커녕 온갖 부정적인 편견이나 냉대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었던, 그런 점에서 ‘사회 내부로부터 추방된 자이면서도 여전히 그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지만 사실상 난민이나 다름없는, 내부와 외부가 구별불가능한 지대가 그들이 존재

11) 한국전쟁이 한국사회에 미친 사회적 영향의 결과 발생한 가치체계의 혼란에 대해서는 정성호, 『한국전쟁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32-54면 참조. 정성호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나타난 가치체계의 혼란의 구체적 세목들로 ‘분단체제의 내면화와 분단의식의 심화,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 불신 풍조와 이기주의의 만연, 현재 중심의 성향 형성, 향락주의의 만연, 피해망상과 허무주의의 팽배, 패배의식 주입, 외세 의존 심리와 사대주의의 형성, 심리적 불안정의 항구화와 고착화’ 등을 들고 있다.

12)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34면.

하는 위상학적 자리인 호모 사케르¹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 사회적 풍기의 오염이나 문란한 성도덕의 주요 표적으로 지목된 전쟁 미망인들은 창졸간에 가족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떠맡게 된 가장이 되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혹한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생활전선에서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곱다시 감수·감내하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렇다면 염상섭은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그러한 통념이나 편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두 장편에 어떤 서사 양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더불어 전쟁 미망인들은 어떤 인물들로 재현되고 형상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두 장편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인물로 기능하는 홍식과 명신의 결혼 성사 여부는 결정적인 중요성이나 비중을 지닌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성사 모티프야말로 이 두 작품을 통해 의도한바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3. 상징계의 지배적 규범과 관습의 장벽 넘어서기

홍식과 명신의 결혼 성사 여부가 이 두 작품을 통해 염상섭이 의도한바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근거나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두 작품이 발표되던 1950년대 당시의 상징계의 규범이나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파격적일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13)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207-208면 참조.

(문) S대학을 다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모조선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24세의 청년입니다. 이곳에 다닌 지 근 1년이 되어갑시다만 그 동안 저는 한 직장의 전쟁미망인 K여사와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K여사는 올해 28세의 여대 출신으로 명랑하고 착실한 인생관을 지닌 현대형 숙녀입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니 늙은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반대합니다.

(답) 전쟁미망인이라고 결혼의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야 없겠지마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미 처녀성을 잃은 이성을 상대로 명랑하고 착실한 인생관이라든가 현대형 숙녀라든가 하는 애매한 막연한 표현만으로 당신의 결혼할 생각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20세 되나마나한 순처녀를 구해 보시구려.

(『딱한 사정』, 『여원』, 1956년 10월호, 252-253쪽)¹⁴⁾

이 문면은 전쟁 직후 한 직장에서 사랑에 빠지게 된 전쟁 미망인과의 결혼 문제로 노모와심각한 갈등을 겪던 미혼 청년이 지혜로운 조언을 기대하고서 보낸 상담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올린 글의 일부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 그리고 집안의 반대나 그 강도 등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전쟁 미망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각각 노모와 부친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결혼이 심각한 장애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이나 본질에 관한 한 이 청년이나 홍식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아무튼 이 문면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상담에 응했던 한국일보 주필의, 전쟁 미망인과 총각의 결혼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면서 그 대안으로 ‘20세 되나마나한 순처녀를 구해보시구려’라는 답변은 지금의 시대적 기준에서라면 아주 내밀한 사적인 자리에서조차도 발화 이전에 여러 번

14) 이임하, 앞의 책, 221-222면.

검열을 거쳐야만 될 정도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따라서 도덕적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조차도 있는, 젠더 감수성이라고는 거의 제로에다 성폭력이나 진배없는 위태로운 발언을 공공의 담론장에서 조금도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이 공공연하게 발화되고 있다.

한편, 이 발언이 당시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 사회 여론 주도층의 지위에 있던 한국일보 주필의 공개적인 발화라는 사실임을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일반 남성들의 평균적인 젠더 감수성이나 성 평등 인식의 수준 또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정도 수준의 젠더 감수성이 당시 상징계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자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을 일반적인 평균치였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명신이와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홍식이 부친과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친의 젠더 감수성 또한 이러한 규범이나 관습의 자장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팔자두! 다 늙게 이게 무슨 꼴이람.”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친의 입에서 저절로 새어 나오는 한탄이었다. 어린 것을 들이나 달고 인제야 스물 대어섯밖에 안된 것이 남의 부모 섬기느라고 생으로 늙는 것을 앞에 두고, **하필 자식이 달린 전쟁미망인을 들째며느리로 끌어들이다니 어린 과부라서 흠절이 아니라 수절을 하는 큰며느리 앞에 그럴 도리가 없고 인정에 차마 그럴 수가 없다고 늙은이 내외는 속을 꿩이는 것이었다.**¹⁵⁾

문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홍식이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15) 염상섭, 『화관』, 글누림, 2017. 31면. 앞으로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인용 문면 다음에 인용 면수만을 밝히는 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미망인』의 경우는 염상섭, 『미망인』, 글누림, 2017.

한국사회의 성징계의 근간으로 여전한 상징권력을 구가하던 전통사회의 봉건적인 가족제도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실천자로서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전쟁 미망인으로 자식들을 데리고서 시댁에서 자신들을 봉양하며 지내는 큰며느리를 하나의 욕망이나 인격을 지닌 독립된 주체로 대접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의 가계나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고 제사를 지내는 효부 역할에만 충실하기만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속품으로 대접하는 데서, 더불어 명신이와의 결혼 문제 또한 그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아마도 그 당시 상징계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볼 때 자식이 하나 딸린 전쟁 미망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아들의 의사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는 부모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명신이와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홍식이 부친의 태도나 입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며 따라서 전통적인 인습에 사로잡힌 아주 완고한 남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명신이의 결혼 경쟁자로 거론되는, 졸업 이후 의사 자리가 보장된 의과대학생 신분의 재원이다 절친인 인웅의 여동생으로 양가의 어른들이 모두 절실하게 원하는 미혼 여성인 인임이의 존재로 인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온갖 반대와 장애를 무릅쓰고서 명신이와의 결혼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홍식이의 의지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랑이라는 정염이나 정동만으로는 말끔하게 봉합하기 어려운, 아니 봉합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따라서 술한 화제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성사 여부가 이 두 장편의 서사를 지탱하고 추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러한 해석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두 장편에 대한 논의는 이 두 사람이 금선(봉선)과 창규(인환)의 집요한 방해 책동과 홍식(진호)의 부모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 및 결혼 자체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한국전쟁 및 전후 한국 사회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결혼 모티프를 매개로 한 한국전쟁 및 전후 한국 사회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설득과 권유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의 설득과 권유를 통해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인물은 홍식이이고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을 통해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인물은 정자경 여사이다

1) 윤리적 차원에서의 설득과 권유

누가 뭐래도 이 두 작품에서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주체로 기능하는 두 인물은 홍식이와 명신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결혼 성사 여부는 이 두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더불어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당시 관습이나 인습의 굴레에 얽매이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여 홍식이와의 결혼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명신을 설득하기 위해 홍식이 내세우는 논리는 한국전쟁 및 전후 한국 사회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이나 해법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사회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홍식은 자기 집의 가풍, 가도(家度)로 보나 실제 문제로 보아서 명신이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공상인 것을 알고 있다. 아이 있는 전쟁 미망인에게 동정하고 반해서 결혼을 한다면 친구들도 놀랄 것이다. 더구나 선불리 말만 꺼내 놓고 남의 맘만 들뜨게했다가는 큰일이다.

홍식은 불끈불끈 피가 솟아오르는 것을 진정시키며 잠잠히 참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미망인』, 150면)

홍식은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졸업반 학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장래가 보장된 전도양양한 건실한 미혼 청년이다. 이러한 조건의 홍식이 입장에서 아이가 하나 딸린 전쟁 미망인인 명신이와의 결혼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성의 범주에서는 한참이나 비껴서 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 집의 가풍, 가도(家度)로 보나 실제 문제로 보아서 명신이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공상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 홍식이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인연이라고 한다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명신이의 남편과 홍식이 형이 절친으로 결혼식 당시 잠깐 본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명신이와의 결혼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식이 내세우는 논리는 ‘난 명신 씨를 대할 제 언제나 저만치 치어다봐 왔어요. 그 소복을 입으신 거와 같이 언제나 깨끗하고 아담스러운 한 이미지를 가지고 봐어 왔어요.’(157면), ‘홍식에게 대한 명신이는 전날에 보던 그 소복단장과 함께 청초하고 숭고한 존재로 마음 속에 간직’(223면) 등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의 서사에서 두 사람의 결혼 성사 모티프는 그 여부를 둘러싸고서 벌어지는 드라마로 규정해도 좋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그러한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명신이라는 전쟁 미망인의 운명의 추이의 추적을 통하여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사회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에 소극적인 명신이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홍식이 내세우는 논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두 작품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과부택이 되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요. 더구나 전쟁미망인은 동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타락하기 쉬운 길로 끌려가는 걸 붙들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미망인』, 162면)

“그보다두 난 지금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하구 싸워야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나 보기에 첫째 명신 씨가 생각을 고쳐야 하겠어요. 난 깨끗한 처녀거니! 하는 송고한 정신을 가지세요. 남은 어떻게 보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이 애는 내가 데리고 들어온 건 줄만 여기구 나는 처녀거니 하는 기분과 사랑을 가져 주세요. 그런 정신으로 아까운 청춘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주세요.”(『미망인』,193-194면)

“묵은 관념 묵은 관습에 얽매어서 다시는 남의 정치(正妻)가 못 된다는 것을 핑계로 돈푼 가진 놈들의 첩으로나 돌아다니며 한평생 농세상으루나 지내볼까.....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에 딱 결단을 하고 못 나서는 거지 뭐야.”(『미망인』, 347면)

결혼 문제로 인한 내면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반추하는 명신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홍식이 내세우는 주장의 논리적 핵심은, 명신이 전쟁 미망인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본인의 잘못이나 죄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전쟁 미망인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될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홍식이의 주장과 논리를 통해 염상섭은 전쟁 미망인에 대한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는커녕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을 비판적으로 심문하고 추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타락의 근원으로 규정되는 또 다른 폭력의 희생양¹⁶⁾으로 매도한 결과 적지 않은 전쟁

16)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9, 태학사, 2004 상반기, 247면.

미망인들로 하여금 안이한 생각이나 판단 착오로 인해 재력가의 첩이나 성매매의 길로 나서게 만든 현실을 비판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로 변해버린 전후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변호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었던 전쟁 미망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지목되어 온갖 편견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솔들의 생계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의 지위를 떠맡게 되어 나선 생활 현장에서도 전쟁 미망인들은 사회의 풍기를 교란하거나 오염시키는 타락한 여성들이라는 낙인이나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다. 실제로 한국전쟁 직후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7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종사했다”¹⁷⁾는 통계가 선명하게 증거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혼이 여의치 않았던 전쟁 미망인들은 생계 유지 및 가족 부양을 위해 생활전선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도시 거주 전쟁 미망인들의 경우 행상이나 샅바느질과 같은 일용 노동 또는 다방이나 미장원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전쟁 미망인들의 경우는 주로 품팔이나 농사에 종사했다 또한 “전국 성매매 여성 가운데 태반이 전쟁 미망인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을 정도로 전쟁 미망인 가운데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¹⁸⁾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당시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두 작품의 서사를 두 사람의 결혼 성사 여부를 축으로 전개하게 한 설정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과의 결혼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명신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세우는 홍식이의 논리를 통해 염상섭은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을 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7) 이임하, 앞의 책, 43면.

18) 위의 책.

2)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

전후 한국사회에서 전쟁 미망인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관심이나 도움으로 말끔하게 해결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아프레 걸, 유엔 마담, 양공주 등 당시 공공의 담론장에서 축출하던 신조어들이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인 전쟁 미망인들은 사회의 성 모럴이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오염원이거나 국가·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기초를 위협하는 파괴자와 같은 부정적인 표상으로 타자화되었다. 그러한 과정과 맞물려 전후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는 “전쟁 미망인들의 타락 가능성만은 염려하는 사회적 담론이 무성”¹⁹⁾하게 일어날 정도로 전쟁 미망인들의 존재 및 그들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성매매나 축첩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축첩 문제는 ‘처첩간의 폭력이나 살해 또는 자살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정도’²⁰⁾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전쟁 미망인들로 인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서 동원과 통제와 같은 방법을 통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 운동이나 계몽 운동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간통의 쌍벌죄 제정(1953), 중혼 금지(1958), 공창제 폐지’²¹⁾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전쟁 미망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적지 않은 노력은 했으나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당시 전쟁 미망인들의 문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19) 강준만, 앞의 책, 307면.

20) 이임하, 앞의 책, 181면.

21)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 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 2010.12, 214면.

을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국가·사회적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자경 여사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기능한다. 서사의 양적인 비중에서 는 홍식이와는 비교 자체가 언어도단일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 작품의 서사의 축으로 기능하는 결혼의 성사 모티프와 관련해서는 홍식이 못지 않은, 아니 홍식이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홍식의 절친인 인웅이의 장모이자 인임이의 절친인 화숙이의 모친인 자경 여사는 홍식이와의 결혼 문제로 욕망과 규범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과 번민을 거듭하며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던 명신이 마지막 돌파구로 찾아가서 그 해법을 의논하던 대상이자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홍식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하게 만든 해결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한편 전쟁 미망인을 둘러싼 염상섭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역할보다 더 중요한 설정은 자경 여사를 전쟁 미망인의 원호단체인 ‘금성 전몰미망인원호회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미망인에 대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한 전쟁 미망인인 정자경 여사가 회장으로 있는 원호회와 같은 준국가적인 기관이나 단체를 동원하여 전쟁 미망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해 보고자 한 것은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가운데 하나이며 그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전쟁 미망인들의 재혼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자경 여사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국가·사회를 대변하는 표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난 당신네 같은 젊은 전쟁미망인이 한 사람이라두 가정부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얌전히 살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두 그런 자국이 걸리면 농치기가 아깝단 말요.....”

명신이의 귀에는 더욱 달갑게 들리는 말이었으나 그저 머리를 숙이고 듣고만 앉았다.

“무어 걱정할 거 없어. 저 집에 대해서 인사가 틀릴 것두 없지. 최후의 승리는 진정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게다가 저편에선 당자가 손을 내두른다니, 무어 의리에 안 됐구 말구가 있나! 다만 어머니께서 중간에 끼시고 친척 간이라 거북할 따름이지.....”(『미망인』, 385면)

영감은 손을 내두르며 이맛살을 찌푸리었다.

“아니,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저는 제 사업의 욕심으루선지, 적어도 님 아드님 같은 **얌전한 신랑감이 한 십만 나와서 젊은 전쟁미망인을 살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만.....**”(『미망인』, 398면)

금선(봉순)의 분방한 성적 욕망이나 일탈과 방종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을 중심으로 일부일처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적 영역을 근대화 혹은 합리화해내는 한편으로 전후의 어지럽혀진 성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²²⁾ 전후 한국사회에서 전쟁 미망인의 존재는 “근대적 가정 만들기의 과정에서 가정성의 숭고한 이념과 충돌하는 위험한 육체, 즉 유희의 기표²³⁾”로 표상되었다. 따라서 금선의 계략과 농간에 의해 홍식(홍익)과 창규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뇌·갈등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명신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홍식(홍익)과 결혼에 이르게 하는 자경 여사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중매 차원의 의미로 국한할 수 없는 아님 국한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그러한 노력은 전후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 국가 사회의 근간인 가정마저도 흔들리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문제의식 또한 당연히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위의 글.

23) 위의 글, 215면.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한국사회의 풍속이나 시대상황을 간접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이 두 장편이 당시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족의 해체나 가부장의 위기 등의 문제를 국가·사회적 차원의 봉합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염상섭이 전쟁 미망인의 결혼을 제시하고 있다²⁴⁾거나 “1950년대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관습적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안인 전쟁 미망인의 재혼을 통하여 전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대한 전면적 거부이자 극복이라는 재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²⁵⁾는 해석들은 적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 결이나 지향에서는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작품의 결말 부분에 회장 마님(정자경 여사)을 등장시켜 명신(영숙)과 홍식(진호)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미망인의 재혼 문제가 현실적인 가능성²⁶⁾을 지니고 있어서 라기보다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작가에 의해 부여된 관념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²⁷⁾라는 해석 또한 그 이면이나 심층에서는 앞선 두 해석들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점에서 그 해석들의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혼 서사의 지연과 잉여

2부 연작 소설의 전편에 해당되는 『미망인』의 서사는 온갖 우여곡절과 부침명멸을 거듭하던 홍식과 명신의 결혼이 자경 여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에 의해 성사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서사의 완

24) 김태진, 『전후의 풍속과 전쟁 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화관』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27, 2005, 89면 참조.

25) 정보람,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염상섭의 『취우』, 『미망인』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49, 2012.04, 350면.

26) 당시 한국사회에서 전쟁 미망인들의 재혼이 쉽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임하, 앞의 책, 218-220면 참조.

27) 김종욱, 앞의 글, 246면.

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후편에 해당하는 『화관』은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어도 무방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단순한 서사의 밀도나 응집력의 차원에서만 따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서사의 긴장이 많이 이완되어 있어 『화관』은 『미망인』의 후일담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러한 해석은 ‘진호(홍식)가 봉순이(금선)를 알게 된 것은 부친의 소개로 영숙이(명신) 모녀 식구가 봉순이 집에 셋방살이 겸 식모로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부터이었다(『화관』, 글누림, 2017, 21면)와 같은 서술자의 요약을 통해 『미망인』에서의 서사 정보를 반복하는 서사의 잉여들이 자주 산견되는 것만 보아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또한 전편에 해당하는 『미망인』에 비해 소략한 서사의 분량 자체도 그렇지만 진호(홍식)과 영숙(명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세력인 박인환과 봉순의 협잡이나 간계에 의해 결혼이 지연되는 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화관』은 그와 같은 인색한 평가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팜프파탈의 전형인 봉순의 섹슈얼리티가 자극하는 감미로운 유희에 이끌려 성적인 욕망이나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진호의 탈선과 일탈 행위에 필요 이상의, 따라서 소모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공과 폄을 들이는 이 작품에 통속이라는 인장을 부과한다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심지어 서사의 결말 또한 두 사람의 결혼 당일 식장에서 풍경이나 이후 이어지는 흥성한 피로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거나 홍식이 직원으로 있는 부산의 한일방직의 김 사장에게 보낸 협박 편지의 발신인으로 추정하면서 미구에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봉순이의 몰락과 파멸을 암시하는 등 해피엔딩과 권선징악이라는 고대소설의 서사적 규율로 후퇴하는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독자와 신문사에 타협하고 말았지마는, 과연 얼마나 자미 있는 소설을 쓰게 될지? 그러나 흥미에 관한

소설, 독자의 비위부터 맞추려는 작품만 쓴다면 문학은 체면을 잃고 타락할 것이다.”²⁸⁾라는 고백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망인』을 연재하기 시작부터 염상섭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당연한 질문 하나. 누구보다 그러한 서사의 양상이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리얼리즘의 서사적 규율에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배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명민하면서도 냉철한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이 굳이 『화관』이라는 제목을 달리하는 작품을 별도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촉발하기 위한 통속적인 의도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미망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문제의식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회한이나 아쉬움 때문이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을 거라고 판단한다. 하나는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전쟁 미망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심문을 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명신이의 결혼 파트너를, 결혼 조건에 관한 당시의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나 세속적 기준으로 따지면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비대칭의 극단을 이루는 흥식으로 설정한 것이라든지 봉순이와 박인환의 간계에 의해 파탄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결혼을 성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정자경 여사에게 설정하는 것들은 모두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서사 전략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두 작품 직전에 발표한 『취우』에서 영식을 대상으로 치열한

28) 염상섭, 앞의 글.

경쟁을 벌이는 두 여성인물인 명신과 강순제가 영식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팽팽한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던 양상²⁹⁾과는 달리 『미망인』과 『화관』에서 홍식을 대상으로 경쟁을 벌이는 두 여성인물인 명신과 금선의 갈등을 통해 전개되는 서사 양상은 사뭇 다르다. 그와 같은 서사 양상의 차이는 한국전쟁 당시의 일상을 서사의 전면에서 소환하고 있는 『취우』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전쟁 미망인들의 삶이나 운명의 추이를 통해 전후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해 보고자 했던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그 두 장편에 반영된 것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관계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결단력”³⁰⁾을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홍식이의 설득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하면서 계몽과 시혜의 수동적 객체로 설정된 명신은 아무래도 『취우』에서의 명신에 비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적인 의지나 강단에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더불어 『취우』에서 명신이 못지않은 결기와 처신을 통해 영식을 사로잡던 강순제와는 달리 유엔 마담이나 양공주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퇴폐적인 인물로 설정된 금선의 경우 또한 강순제의 카운터 파트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이러한 서사 양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여성의식의 약화나 후퇴에서일까? 아니면 문제의식에 연동된 서사적 개연성에서일까? 그도 아님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니거나일까? 선불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50대 중반을 넘어 환갑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발표한 이 두 장편에 문제

29) 이에 대해서는 공종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제78집, 2019.09 참조.

30) 정보람, 『‘탕녀’와 ‘가장’: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의 이중적 표상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61, 2016.03, 246면.

의 밀도나 서사의 완성도에서 노쇠의 기미나 징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염상섭의 여성의식 또한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 보면서 이 글을 매조 지고자 한다.

5. 나오는 글

1945년 해방 이후의 염상섭의 소설들 특히 장편소설은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나 서사의 밀도, 그리고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떨어지는 범속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었다. 사실 『삼대』나 『만세전』 등 해방 이전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염상섭의 작가적 정체성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작품들과 비교하면 그러한 지적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염상섭의 소설들 또한 여전히 그의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자 작가적 화두로 기능하는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자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힘들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증하기 위해 연작 소설에 해당하는 『미망인』과 『화관』 두 장편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했다.

무엇보다 이 두 작품을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해석 코드로 접근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두 장편이 전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증상 가운데 하나였던 ‘전쟁 미망인’의 문제를 서사의 전면에 소환하여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의 운명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 대략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쟁 미망인들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 등 고급 일자리에 필요한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출간에 가족의 부양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

전쟁 미망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선택 가능한 일자리 또한 좋을 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전쟁 미망인들은 주로 샅바느질이나 품팔이, 가사 도우미나 행상과 같은 일용 노동이나 다방 레지와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그리고 일부 전쟁 미망인들의 경우 성매매에 뛰어들기도 했다.

황당한 폐허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전후 한국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전쟁 미망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은 국가 사회가 떠맡아야 할 마땅한 책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가 재건과 복구 사업이 화급한 당시 상황에서 전쟁 미망인들까지 섬세하게 돌보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정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들 전쟁 미망인들을 배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 전쟁 미망인들을 따뜻한 온정과 관심으로 대하기는커녕 차별과 냉대로 일관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후 한국사회에서 사회 풍기의 타락이나 문란한 성 윤리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또한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전통적인 가족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전쟁 미망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었다. 설령 전쟁 미망인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은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희생양이나 완충지대를 필요로 했다. 그 희생양이나 완충지대는 바로 당시 한국사회에서 성 윤리의 문란이나 사회 풍기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온상으로 지목된 전쟁 미망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한국사회의 권력 위계에서 최하위 포식자의 자리에 위치했던 전쟁 미망인들이야말로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충격이나 공격성의 독소나 악취를 오롯이 흡수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등단 이후 일관되게 리얼리스트로서의 세계관과 창작 방법을 작가적 화두로 삼아 온 염상섭에게 이와 같은 전쟁 미망인의 문제는 결코 외면해 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미망인』과 『화관』 두 연작 장편은 바로 그러한 작가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 두 장편을 통해 염상섭은 당시 전쟁 미망인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사회적 책임임을 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해법으로 염상섭은 전쟁 미망인의 결혼을 제시하고 있다.

명신이의 결혼 파트너로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범에 비추어보면 비현실적일 정도로 조건의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홍식이를 선택하게 하는 설정이나 본인 또한 전쟁 미망인이면서 위기에 봉착한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경 여사의 직함을 전쟁 미망인의 원호회 회장으로 등장하게 하는 설정들은 모두 그러한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리얼리즘의 미학적 규율과 충돌할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결혼 서사를 지연하거나 결혼 서사의 잉여가 많은 것 또한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편

염상섭. 『미망인』. 글누림, 2017.

염상섭. 『화관』. 글누림, 2017.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2014.

2. 국내·외 논저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50년대편, 1·2·3권). 인물과 사상사, 2004.

고은. 『1950년대』. 청하, 1989.

공종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제78집, 2019, 5-25면.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의 시학』.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 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 2010, 211-229면.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과 『화관』 연작』. 『한국근대문학연구』9. 태학사, 2004, 229-252면.

김태진. 『전후의 풍속과 전쟁 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염상섭의 『미망인』·『화관』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27, 2005, 84-105면.

스테판 코올/여균동.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한밭출판사, 1982.

위르겐 슈람케/원당희·박병화.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정보람.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염상섭의 『취우』, 『미망인』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49. 2012, 328-356면.

정보람. 『‘탕녀’와 ‘가장’: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의 이중적 표상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61, 2016, 229-262면.

페터 V.지마/서영상·김창주. 『소설과 이데올로기』. 문예출판사,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한수영. 『소설의 일상성: 후기 단편소설』. 문학과 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155-184면.

<Abstract>

The War Widows in Yeom Sang-seop's Novels

Kong, Jong-Goo

It is not easy to deny the criticism that Yeom Sang-seop's novels, especially full-length novels, after liberation in 1945 are relatively less dense in style or the perfection of the narrative compared to his previous works. Nevertheless, his novels after liberation are still working in the fields of realism and ethnic minorities functioning as two pillars supporting his literature. This paper started with this sense of problem and two novels 『The Widow』, 『The Wreath』 are called out for intensive analysis to demonstrate the awarenes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he two works to the interpretation code of ethnic literature and realism is to summon the issue of 'war widows' to the front of the narrative which w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symptoms in the post-war Korean society and track the changes of their fate. Supporting and protecting war widows in post-war Korean society was a proper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 Nevertheless, the work was forced to fall behind in the priorities. However, despite such realistic circumstances, it could not but be a problem to otherize these war widows, who are direct victims of the Korean War, as object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Nevertheless, members of the society at that time consistently treated war widows with discrimination and coldness.

In that extension, members of Korean society at the time needed a scapegoat or buffer zon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chaos or

disorder caused by the degradation of social customs or sexual ethics could be shifted. The victims or objects targeted as buffer zone were war widows who were at the bottom of the predators in the Korean social hierarchy. It was because war widows were the easiest group to absorb or alleviate the psychological shock or toxins and odors of aggression from members of the society.

For Yeom Sang-seop, who consistently used his view of the world as a realist and creative method as a writer's topic since his debut, the issue of war widows like this was something he should never disregard or could not turn away. The works 『The Widow』 and 『The Wreath』 actively reflect such writer's interest. Through those two works, Yeom Sang-seop reflected 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leaving war widows unattended is a dereliction of duty for the state and society and actively supporting and protecting them was a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it suggests marriage of war widows as a concrete way or solution to fulfill such social responsibilities.

Key words: realism and ethnic literature, postwar society, war widows, social chaos and disorder, degradation of social customs or sexual ethics, scapegoat and buffer zon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e delay and surplus of narrative

투 고 일 : 2020년 5월 11일

심 사 일 : 2020년 5월 2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